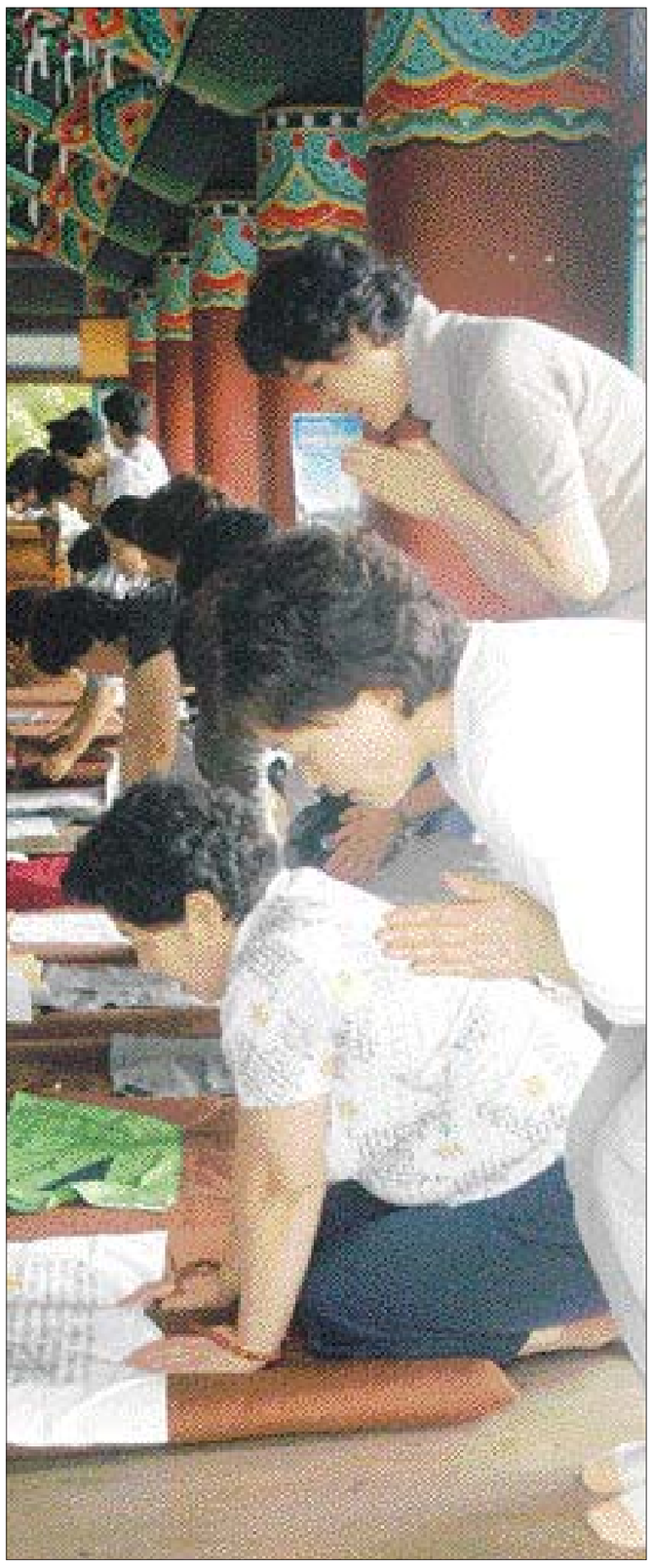
신속하고 편리한 대출
동일저축은행 226-0180

光州日報
The Kwangju Ilbo

수완신도시 파크레
분양문의 062) 367-9000

제1782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2200-500·222-8111 www.kwangju.co.kr 2007년 8월 7일 (음력 6월 25일) 화요일



수능 D-100…간절한 母情

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이 7일로 꼭 100일 남았다.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. 수능 100일을 하루 앞둔 6일 학부모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를 찾아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고,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합장·기원하고 있다.

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"돈 내고는 안탄다"

2순환로 4구간 유료 전환뒤 통행량 60% 줄어

광주시, 年 40억 적자보전

민자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(서창IC~신가IC·총연장 4.52km)이 지난 7월 1일부터 통행료(승용차 기준 1천원)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전환됐다. 이후 7월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7천307대. 이는 광주시가 추정한 통행량 4만9천783대의 54.9%에 불과하다. 유료화 이전 하루 평균 통행량 6만5천대에 비하면 60%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. 통행료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한 것이다.

통행량 급감에 따라 결국 광주시가 민자투자회사에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액은 더 늘게 됐다. 제2순환도로 4구간의 통행량 급감에 따라 7월 이후 올 말까지 6개월동안 광주시가 부담할 적자보전액은 약 20억원. 제2순환도로 민자 1, 3구간의 올해 적자보전액 170억원에 4구간의 보전액 20억원을 포함하면 올 적자보전액만 200억원에 육박한다.

■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협약 개요

구간명	시·종점(거리)	승용차 통행료	징수기간	예상수입 보장률	적자보전 보장기간	투자액
1구간	두암~소태(5.6㎞)	1000원	2001~2028년	85%	28년	1,731억원
3구간	효덕~풍암(3.5㎞)	900원	2004~2034년	90%	30년	1,078억원
4구간	서창IC~신가IC(4.5㎞)	1000원	2007~2037년	80%	15년	1,670억원

특히 민자 4구간은 수입 보장률을 다른 민자구간(1구간 85%, 3구간 90%) 보다 낮은 추정 통행수입의 80%선에서 결정했는데도 통행량 급감으로 연간 40억원 이상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.

광주시가 도로 건설사와 협약한 제2순환도로 4구간의 올 7월 이후 6개월간의 추정통행량 기준 수입액은 82억1천만원. 여기에 수입보장률(80%)을 적용하면 광주시가 보장해야 할 보장통행수입은 65억6천800만원이지만 현재 추세로 가면 실제 수입액은 55%선인 45억1천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. 차액 20억원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.

광주시는 주변 우회도로가 많은데다 짧은 거리에 비해 다소 높은 요금, 홍보부족 등을 통행량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.

제2순환도로 4구간은 유료 통행 전 무료 시험운행시에는 예상 통행량의 130%의 통행률을 기록하다 유료로 전환된 뒤 55%로 떨어졌으며, 나머지 1, 3구간도 무료 시험운행기간 동안에는 100~110%의 통행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제2순환도로 중 사실상 마지막 구간인 각화동 구간이 이달 말부터 개통되면 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"이라면서 "1, 3구간의 적자 보전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민자사와 협약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"고 말했다.

/채희종기자 chae@

부시·카르자이 "맞교환 불가"

정부 'NGO 중재 통한 대면협상' 제안 검토

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신월사(회교국의 적십자사) 등 비정부기구(NGO)의 중재와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대면접촉을 탈레반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미국을 방문 중인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일 낮(한국시각 7일 새벽)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. 이와 관련 탈레반은 '한국인 인질 21명의 목숨이 미국-아프간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'고 압박하고 나섰다. 〈관련기사 5면〉

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대면접촉을 갖자는 탈레반측의 요구는 유엔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, 대안으로 NGO 중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아사히(朝日)신문은 이날 한국인 피랍자 3명과 강성주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가 휴대전화를 통해 30분 가량 첫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. 피랍 한국인들을 위한 의약품도 탈레반측에 전달됐다.

미-아프간 정상회담과 관련 카르자이 대통령은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"납치를 더 조장하는 협상은 안된다"고 밝혀 탈레반의 인질 맞교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.

/정후식기자 who@·워싱턴=연합뉴스

우림학원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
남부대학교
http://www.nambu.ac.kr
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
전남과학대학
http://www.chunnam-c.ac.kr

김성호 법무장관 사의

농림·정통도…靑, 곧 개각

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 중 3~4개 부처 장관(급)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교체 대상에는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장관과 박홍수 농림장관,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등 3명이 포함되고, 1~2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최종 개각 대상 부처는 유동적이지만 임상규 국무조정실장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새 법무장관에는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 박홍수 농림장관의 후임으로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,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.

/연합뉴스